

6월 모의평가 결과로 입시전략 세워라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입시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험생들은 이번 모의평가 성적통보(26일)를 받은 뒤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첫 수시모집의 원서접수에 대비해야 한다.

관건은 실제 수능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지 예측하는 것이다. 재학생은 지난 3, 4월에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과 이번 모의평가 성적의 변화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3, 4월은 재학생만 치른 시험이고, 6월 모의평가는 재수생이 포함된 시험이다. 세 가지 시험의 성적을 비교하면 실제 수능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가늠할 수 있다.

입시전문가인 진학사가 추천하는 입시지원 전략을 밟아봤다.

◇정시 합격선 오를 듯=이번 모의수능에서는 전년 모의평가의 접수 인원(언어영역·기준)과 비교했을 때, 재학생·졸업생 수자가 모두 감소했다.

졸업생 등의 응시가 줄었다고 재학생들의 정시 지원이 수월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시 모집인원이 늘었고, 수시에서도 미등록 총원(수시 추가합격)을 실시하면서 정시 모집인원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의 경우 정시 모집인원 감소와 쉬운 수능으로 인해 정시 합격선이 올랐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 파악해야=6월 모의평가 같은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된다면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지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정답을 썼던 문



'서울지역 대학 연합 공동 입시설명회'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대학 입시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수생·재학생 모두 응시... 학습전반 점검기회

쉬운 수능, 한 두 문제로 대학당락 바뀔수 있어

제라도 자신이 정확히 아는 문항인지, 운 좋게 맞춘 것인지를 따져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성적을 가능해 봐야 한다.

예상 성적과 이번에 나온 성적 차이가 크다면 모의 수능점수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실제 수능에서 한, 두 문제 치어로 대학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년도 수능에서 수리나 영어·외국어 영역은 1등급 까지 96

점, 97점으로 나타나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6월 모의평가로 지원 전략 세워야=전년도에는 9월 모의평가 시험을 9월 초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 수시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올해는 9월 모의평가 전에 접수가 끝나는 대학도 있다. 대부분 대학의 경우 모의수능이 끝난 후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지난해는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

과를 기준으로 수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전년도까지는 수시 6회 지원제한이 없어 모의평가 성적과 무관하게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횟수 제한으로 인해 무턱대고 원서를 내기도 어렵다.

결국, 이번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수시·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모의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고 수시에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 것인지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 대학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독일유학, 전남대가 도와드립니다”

25일~7월13일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진행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광주에서 어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주한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Seoul)과 독일어 코스 운영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는 이를 빌려 시범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

전남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13일

까지 독일문화원 어학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정통 독일어 학습이나 회화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주한독일문화원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번 강좌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전남대에 파견해 유럽 공통 기준의 교

수법을 선보인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전남대 독일 언어학과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원이다.

전남대의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설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는

독일문화원 및 명예영사관이 주관하는 ‘독일어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어학코스를 이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법학 계열을 비롯해 예체능계, 이공계열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이 독일 유학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독일어 코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남대 독일언어학과 학과실(062-530-3170, cjchung518@hanmail.net).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13일

까지 독일문화원 어학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정통 독일어 학습이나 회화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주한독일문화원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번 강좌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전남대에 파견해 유럽 공통 기준의 교

수법을 선보인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전남대 독일 언어학과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원이다.

전남대의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설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는

독일문화원 및 명예영사관이 주관하는 ‘독일어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어학코스를 이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법학 계열을 비롯해 예체능계, 이공계열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이 독일 유학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독일어 코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남대 독일언어학과 학과실(062-530-3170, cjchung518@hanmail.net).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13일

까지 독일문화원 어학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정통 독일어 학습이나 회화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주한독일문화원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번 강좌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전남대에 파견해 유럽 공통 기준의 교

수법을 선보인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전남대 독일 언어학과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원이다.

전남대의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설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는

독일문화원 및 명예영사관이 주관하는 ‘독일어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어학코스를 이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법학 계열을 비롯해 예체능계, 이공계열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이 독일 유학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독일어 코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남대 독일언어학과 학과실(062-530-3170, cjchung518@hanmail.net).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13일

까지 독일문화원 어학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정통 독일어 학습이나 회화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주한독일문화원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번 강좌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전남대에 파견해 유럽 공통 기준의 교

수법을 선보인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전남대 독일 언어학과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원이다.

전남대의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설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는

독일문화원 및 명예영사관이 주관하는 ‘독일어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어학코스를 이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법학 계열을 비롯해 예체능계, 이공계열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이 독일 유학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독일어 코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남대 독일언어학과 학과실(062-530-3170, cjchung518@hanmail.net).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13일

까지 독일문화원 어학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정통 독일어 학습이나 회화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주한독일문화원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번 강좌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전남대에 파견해 유럽 공통 기준의 교

수법을 선보인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전남대 독일 언어학과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원이다.

전남대의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설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는

독일문화원 및 명예영사관이 주관하는 ‘독일어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어학코스를 이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법학 계열을 비롯해 예체능계, 이공계열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이 독일 유학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독일어 코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남대 독일언어학과 학과실(062-530-3170, cjchung518@hanmail.net).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13일

까지 독일문화원 어학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정통 독일어 학습이나 회화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주한독일문화원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번 강좌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전남대에 파견해 유럽 공통 기준의 교

수법을 선보인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전남대 독일 언어학과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원이다.

전남대의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설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는

독일문화원 및 명예영사관이 주관하는 ‘독일어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어학코스를 이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법학 계열을 비롯해 예체능계, 이공계열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이 독일 유학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독일어 코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남대 독일언어학과 학과실(062-530-3170, cjchung518@hanmail.net).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13일

까지 독일문화원 어학코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정통 독일어 학습이나 회화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주한독일문화원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번 강좌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전남대에 파견해 유럽 공통 기준의 교

수법을 선보인다.

참가신청은 20일까지 전남대 독일 언어학과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원이다.

전남대의 ‘독일문화원 독일어 코스’ 설치는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대구에서는

독일문화원 및 명예영사관이 주관하는 ‘독일어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독일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어학코스를 이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법학 계열을 비롯해 예체능계, 이공계열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이 독일 유학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독일어 코스’